민선 5기에 바란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급하다

◇정대규 양동시장 상인=서민 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이 살아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부족한 고객편의 공간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형마트·SSM 진출 막아달라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적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등록제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진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달라. 일자리 창출 정책도 다양화해야 한다.

어두운 길 가로등 설치해달라

◇김형수 택시운전사=택시 운전사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어두운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한다.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을 펼쳐 준다면 좋겠다.

U대회 성공 완벽한 준비를

◇백희준 호남대 영어영문학과 학생=아시아 문화허브를 바라는 시민 염원이 헛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세계 대학생축제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호남고속철의 차질 없는 완공을 희망한다.

교복·수학여행비 지원 이뤄지길

◇장미순 학부모=도교육청에서 급식비는 물론 교복·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다.

반드시 시행됐으면 한다. 다만 예산이 복지로만 몰려 시설 확충 등 다른 교육사업이 소홀히 돼선 안되겠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 조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한 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급식봉사를 했다. 〈목포시청 제공〉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1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 앞서 남구 사직동 '사랑의 쉼터'를 찾아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 남구청 제공〉

재선에 성공한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1일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급식봉사를 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선 5기 단체장 다양해진 취임식

화환 없애고 급식봉사로 시작

송광운·최영호·정종득·정기호 경로당 등 찾아 식판 날라

민선 5기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1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취임식을 하지 않고 이날 오전 11시30분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급식봉사를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 역시 이날 오전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나르는 봉사활동을 한 뒤 오후에는 남구문예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취임식을 간단히 끝내고 곧바로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생재활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정기호 영광군수는 취임식 대신 관내 경로당과 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으로 민선 5기 군정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취임행사를 대대적인 축제분위기로 행사를 거행하는데,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박하고 검소한 취임행사를 하자는 정 군수의 뜻에 따라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취임행사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취임식장이나 청사로 배달되는 축하화환이나 화분을 모두 돌려보냈으며, 이성웅 광양시장도 화환 2개 등 취임식 행사비로 26만원을 사용하는 등 과거 성대하게 치러졌던 취임식 관행이 민선 5기 들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옥중 청장 대신 부인 취임식수

광주 서구청 눈총…황주홍 군수는 가수 초청 구설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 광주시 서구청장의 취임식이 1일 기념식수로 대신 치러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옥중'에 있는 전 청장을 대신해 전 청장의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수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황주홍 군수 취임식을 위해 모두 1만여장의 초청장을 보내고 대중가수까지 초청해 구설수에 올랐다.

광주시 서구청은 이날 오전 청사 입구에서 전 청장의 부인, 서구 유관기관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이임 및 민선5기 취임 기념식수' 행사를 열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직무정지 신분이지만 구청장 신분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대적인 취임식을 열지는 못하지만 구청의 전통인 만큼 식수 행사만이라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서구청 노조 관계자 10여명이 전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 직원 간 마찰이 빚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구청장이 비리 혐의로 직무정지 신분인데도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청장이 먼저 사퇴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인데 취임행사를 갖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이날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5기 황주홍 강진군수 취임식에 앞서 나흘 전부터 군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초청장 1만 여장을 발송했으며, 각 읍·면에 현수막을 내걸어 취임식을 대폭 간소화시킨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취임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강운태 광주시장 5·18묘지 참배 "창조도시 도와달라"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선5기 제11대 광주시장 취임식이 열린 1일, 아침 일찍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영령들께 참배하고 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를 들고 5·18민주묘역 앞에 선 강 시장은 "광주를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5월 영령들께서도 5월 정신이 세계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광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반듯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창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5·18묘역 참배를 마치고 정수만 유족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관선 마지막 광주시장 재임시 5·18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4년 11월 1일 5·18단체가 불협화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을 모아 5·18민주묘역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그리고 1995년 5월 17일 열린 제15주년 5·18희생자 추모식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로서는 최초로 정식 초청을 받아 5·18영령들께 추도사를 올렸던 것 등을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강 시장은 특히 취임식 본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합창 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5·18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광주시장 취임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0년만의 권력 교체 감개무량

민주당 지도부·권양숙 여사 전국 각지 취임식 참석

민주당 지도부가 10여년 만의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감격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일을 맞았다.

당 지도부는 1일 여의도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가서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광재 강원지사 취임식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목포에서 개최된 시장 취임식에 각각 참석,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실질적으로 누렸다.

또 원내부대표단 등을 비롯, 소속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애초 이날 오전 예정된 고위정책회의는 전날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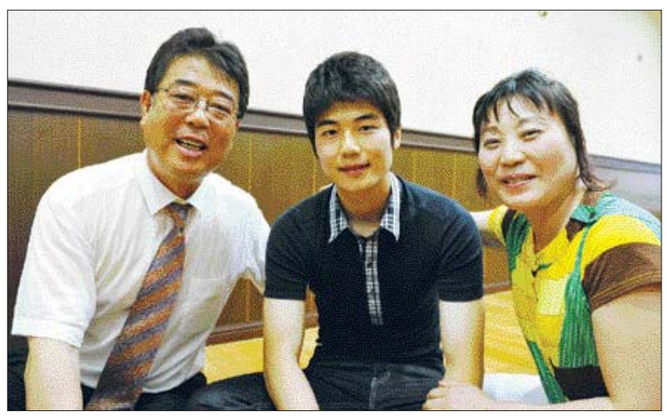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4년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거나,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국민은 기대·성원을 언제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식 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지사 문제로 곤혹스러운 표정도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 무상급식 등 주요 지방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선 지자체들과 정책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강 견인 기성용 선수 고향 광양 금의환향



남아공 월드컵에서 황금같은 어시스트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견인한 축구국가대표 기성용(21·셀틱FC)이 1일 광양 고향집에서 아버지 기영옥씨, 어머니 남영숙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광양=김진수기자 jeans@

"8강 못가 아쉽지만 즐거운 월드컵이었다"

기성용이 광주일보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사인.

대한민국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해낸 광주 금호고 출신 기성용(21·셀틱FC)이 금의환향했다. 그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카카, 독일의 토마스 뮐러와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조별 예선 최다 도움 선수'에 뽑힐 정도로 맹활약했다.

지난달 30일 광양 고향집에서 만난 기성용은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월드컵'이라고 평가했다.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석패해 아쉽게 8강에 오르진 못했지만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비록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새로운 승부수가 된 세트피스의 시발점이 돼 주가를 높였다.

기성용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나이지리아와의 대결을 꼽았다. 2대2로 비겼지만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 2도움을 기록한 기성용 선수는 자신의 발에서 출발한 공이 골로 연결될 때마다 고향집 광양에서 응원하고 있는 어머니와 친척들, 거리응원에 나선 붉은악마와 국민을 떠올렸다.

또 직접 남아공을 찾아 자신을 응원해 준 아버지(기영옥 광주시축구협회장·전 금호고 축구부 감독)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특히 나이지리아 전에서 직접 찬 공이 이정수 선수에게 연결돼 골망을 흔들었을 때 가족들이 맨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이번 월드컵에서 내 역할이 골을 넣는 것은 아니었다. 발끝을 떠난 공이 동료에 의해 골로 연결돼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밝혔다. 미드필더의 주요 임무는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 골을 넣어야겠다는 욕심은 없었다는 것이다.

기성용은 최근 선배인 차두리 선수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셀틱에 입단할 것으로 알려져 한솥밥을 먹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친한 선배이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뛰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다. 기성용은 지난 1월부터 4년 계약으로 셀틱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양 고향집에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기성용은 3일 서울로 올라가 소속팀인 셀틱 복귀 준비를 할 계획이다. 기성용은 "즐거운 월드컵이었다. 4년 뒤에 있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선수로 발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양=김호기자 kimho@kwangju.co.kr